

成無已와 『註解傷寒論』에 대한 고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김진호 · 방정균*

對於成無已和『註解傷寒論』的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典醫史學教室
金振鏞 · 方正均

通過以上的研究, 得到了如下的結論

其一是, 成無已是北宋聊攝的人, 關他的記錄不多, 但通於『醫林列傳』、『古今醫統大全』及他的著書, 可以審關他的言及. 其二是, 他的著書, 有『註解傷寒論』10卷和『傷寒明理論』4卷, 這是闡明『傷寒論』的未發之義, 並形成了關於用方藥的理論體系. 其三是, 他撰成的『註解傷寒論』是最初的關於『傷寒論』之註釋書.

Key Words : 成無已, 註解傷寒論, 傷寒論

I. 序論

漢·張機의 著作으로 알려진 『傷寒論』은 韓醫學의 初有의 임상의학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辨證論治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傷寒論』에 관한 풍부한 내용들은 본래부터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傷寒論』이 西晉·王叔和에 의해 정리되기는 하였지만 隋唐五代에 이르기까지 그 보급은 그리 폭넓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宋代를 거치면서 北宋·成無已에 의해 『傷寒論』 전반에 걸쳐 註釋이 더해졌고, 이를 계기로 『傷寒論』에 대한 이해와 응용 및 발전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부터 傷寒學派가 형성되었다.

이에 論者는 傷寒學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한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우선 과제로 『註解傷寒論』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을 통하여 成無已와 그의 著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成無已의 生涯와 著作

1) 生涯

成無已는 北宋·聊攝(지금의 山東省 聊城縣, 陽谷縣 일대) 사람으로,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때때로 “成聊攝”이라고 부른다. 成無已의 生卒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확한 고증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다만 散在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의 生卒 연대와 관련된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張國駿은 北宋·嘉祐八年(1063년) 혹은 治平元年(1064년)에 태어났고 靖康¹⁾後에는 그 聊攝 땅이 金에 속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를 金나라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金·正隆元年(1156년) 혹은 正隆二年(1157년)까지 살았으니, 享年 90여세이다 라고 하였다²⁾. 둘째, 李順保는 出生 연도에 있어서 2가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33) 730 -0666, bjkdew@sangji.ac.kr

1) 靖康은 宋·欽宗의 연호로서 北宋의 마지막 황제이며, 재위 기간은 1126년에서 1127년까지이다.
2)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張孝忠의 跋文을 근거로 하면 1063~1066년이 된다고 보았고³⁾, 魏公衡의 序文과 王鼎의 跋文을 근거로 하면 1044~1052년이 된다고 보았다. 사망 시기에 있어서는 嚴器之의 序文에 근거하면 1144년이 되지만, 魏公衡의 序文을 근거로 하면 『註解傷寒論』이 간행된 시기인 1172년 직전이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주장을 근거로 추산해 보면 成無已는 대략 100~120세 정도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

한편, 그의 평생의 事迹에 대해서도 正史에는 기록된 바가 없고, 다만 『醫林列傳』⁵⁾과 『古今醫統大全』 및 그의 著書의 몇몇 序文 및 跋文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醫林列傳』에는 “家世儒醫, 性識明敏, 記問該博”⁶⁾이라 하였고, 『古今醫統大全』에는 “該博羣書, 有敏質, 祖述仲景傷寒, 辨析表裏虛實, 極其旨趣”⁷⁾라고 하였으며, 嚴器之는 『註解傷寒論』의 序文에서 “聊攝成公, 議論該博, 術業精通, 而有家學, 注成傷寒十卷, 出以示僕, 其三百九十七法之內, 分析異同, 彰明隱奧, 調陳脈理, 區別陰陽, 使表里以昭然, 俾汗下而灼見, 百一十二方之後, 通明名號之由, 彰顯藥性之主, 十劑輕重之攸分, 七精制用之斯見, 別氣味之所宜, 明補瀉之所適, 又皆引內經, 旁牽眾說, 方法之辨, 莫不允當, 實前賢所未言, 後學所未識, 是得仲景之深意者也.”⁸⁾라고 하였고, 張孝忠은 『傷寒明理論』의 跋文에서 “古今言傷寒者, 祖張長沙, 但因其証而用之, 初未有發明其意義. 成公博極研精, 深造自得, 本『難』·『素』·『靈樞』諸書以發明其奧, 因仲景方論以辨析其理, 極表裏虛實陰陽死生之說, 究藥病輕重去取加減之意, 毫發了無遺恨. 誠仲景之忠臣, 醫家之大法也.”⁹⁾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평가를 볼 때 成無已는

대대로 醫業에 종사하였던 집안에서 출생하여 家傳이 있었고, 특히 『內經』 등 경전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成無已를 평가함에 있어 “儒醫”라고 하기도 하는데¹⁰⁾, 이는 그가 『註解傷寒論』을 저술하면서 『周易』과 『論語』 등의 儒學經典을 인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著作

그의 著書로는 1144년에 완성된 『註解傷寒論』 10卷과 대략 1156년에 간행된 『傷寒明理論』 4卷¹¹⁾이 있다. 成無已의 著作들은 소박한 이론으로 『傷寒論』의 未發된 뜻을 闡明하였으며, 아울러 方藥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원화된 이론체계를 형성했고, 辨證論治에 대한 정신을 闡述하는데 대단한 공헌을 하였다 하겠다. 또한 3종¹²⁾의 傷寒書에는 註解, 論證, 方論이 있어서 이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그의 傷寒學說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註解傷寒論』

1) 최초의 『傷寒論』 註釋書

林億 등이 교정·간행한 『傷寒論』은 宋 이후로 復刻된 판본이 매우 적었고, 본문에 관한 개별적인 문자의 校勘은 있었지만 註釋은 없어서 初學者와 임상응용에 있어서 자못 불편한 점이 많았다. 成無已는 王叔和가 정리한 판본에 근거하여 ‘以經註論’의 방법으로 「辨脈法第一」에서부터 「辨發汗吐下後脈證并治第二十二」까지의 22편에 전부 註釋을 가함으로써 註解를 통한 『傷寒論』 연구의 효시를 열었다.

成無已와 『註解傷寒論』에 대한 비평을 살펴보자면, 陶華와 같은 醫家は “順文註釋 并無缺疑正誤之言 以致將冬時 傷寒之方 通釋溫暑 遺禍至今而未已也”¹³⁾

2005. p. 195.

3) 이후 『四庫全書總目』, 『鄭堂讀書記』, 『讀書敏求記』, 『山東通志』은 張孝忠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4)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 716.

5) 宋本『傷寒論』에 실려 있다.

6)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 378.

7) 徐春甫 編集.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 출판사. 1994. p. 33.

8) 成無已 註解.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

9)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153.

10)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 716.

11) 『明理論』3권과 『藥方論』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註解傷寒論』10권, 『明理論』3권, 『藥方論』1권을 말한다.

13)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 211.

라 하여 酷評을 가하였고, 汪琥는 “成無已의 『註解傷寒論』은 王冰의 『內經』註釋을 얻어서 집어넣고 어려운 것은 창시하였을 따름이다. 나중 사람들이 註釋 가운데에서 의심될 만한 것을 밝힌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태반이 그 註釋을 바탕으로 깨우친 것들이다. 그 깨우쳐 준 공로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註解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는 혹 成無已의 『註解傷寒論』은 문장을 좇아 따라가면서 푼 것에 지나지 않다 하고, 단지 王叔和의 말을 辨別하지 않고 張仲景의 책과 구분하지 않은 것을 혐의한다. 곧 옛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책을 쓰고 감히 쉽게 책망하지 않으므로 기쁨이 높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들은 그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스스로 싫어할 따름이다.”¹⁴⁾라고 하여 비교적 중도적인 비평을 가하였다. 註解가 비록 “不過順文隨釋”하여 牽強附會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註解傷寒論』의 출현이 『傷寒論』의 이해와 응용 및 발전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그로부터 傷寒學派가 형성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校正醫書局에서 간행된 『宋本傷寒論』이 후세에 잘 전해지지 못한 반면, 成無已의 『註解傷寒論』은 여러 차례 간행이 되면서 비교적 후대에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후대의 傷寒論 연구가 대부분 『宋本傷寒論』 보다는 『註解傷寒論』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明清代의 傷寒論 관련 연구에 있어 주요 版本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2) “經”으로 “論”·“症”·“方”을 해석

成無已의 『註解傷寒論』의 최대 특징은 “經”으로 “論”·“症”·“方”을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經”은 成無已의 前代 혹은 같은 시기의 서적들로서, 예를 들자면 『內經』·『難經』·『傷寒論』·『金匱要略』·『脉經』·『針經』·『玉函經』·『千金方』·『神農本草經』·『針灸甲乙經』·『外臺秘要』·『聖濟經』·『諸病源候論』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들이 『註解傷寒論』에 인용된 횟수를 살펴보자면 『內經』이 제일 많아서 137곳으로 『靈樞』에 비해 『素問』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한 그 중에 『素問·至真要大論』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이 외에 『難經』은 17곳, 『金匱要略』은 36곳, 『脉經』은 17곳, 『針經』은 32곳, 『玉函經』은 11곳, 『千金方』은 12곳, 『神農本草經』은 7곳, 『針灸甲乙經』은 1곳, 『外臺秘要』는 5곳, 『聖濟經』은 3곳, 『諸病源候論』은 2곳이며, 이외에 출처를 알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용에 있어서 문자의 增減이나 뒤섞임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살펴보자면 문장을 엄격하게 인용하지 않았거나 抄寫의 착오, 板本의 차이로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의학서적 외에 『易經』·『論語』와 같은 非醫學서적도 인용하였다¹⁶⁾.

3) 기타 특징

『註解傷寒論』의 특징에 대해 張國駿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⁷⁾.

(1) 釋音

成無已는 『註解傷寒論』의 券後에 “釋音”을 두어 내용 중에 나오는 僻字¹⁸⁾에 대하여 발음을 표시하였는데, 170餘字에 이른다. 후반부에 있는 券에는 “釋音”이 없지만 문장 중에 역시 발음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발음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音字로 발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見音現”, “聞音合”과 같은 것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反切¹⁹⁾하여 발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响香句切”, “衄女六切”과 같은 것들이다.

(2) 忠實原著, 言簡意賅

成無已는 『傷寒論』을 주석함에 있어 원저에 충실

14) 陳大舜·曾勇·黃政德 역음, 맹웅재·박현국·박경남·김남일·신영일·김용진·안상우·김훈·김홍균·차용석 옮김,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26.

15) 李順保 編者,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 717.

16)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196.

17)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 198-211.

18) 흔히 쓰지 않는 글자.

19) 漢文 글자의 두 字의 音을 반씩 취하여 한 音을 만들어 읽는 법.

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해석하였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보존하였다. 제멋대로 原著의 순서를 혼란시키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뜻을 강제로 仲景에 더하지 아니하였으며 간단명료한 문자로 條文의 실질적인 내용을 드러내 보였다.

(3) 藏府를 중시함

成無已는 『傷寒論』의 주석을 답에 있어 藏府를 중시하여, 증상들의 설명에 있어 藏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傷寒論』에 제시되어 있는 증상들을 설명함에 있어 藏府의 生理病理적 내용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법은 후대의 『傷寒論』 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成註本과 宋本の 차이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校正醫書局에서 간행한 『宋本傷寒論』은 후대에 잘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成無已의 『註解傷寒論』이 『宋本傷寒論』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註解傷寒論』이 저본으로 삼은 판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논쟁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기되고 있는 논쟁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註解傷寒論』이 成無已가 註解한 原本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 『宋本傷寒論』과 『註解傷寒論』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成無已의 개인적 견해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成無已가 대대로 醫業에 종사하였던 집안에서 출생하였으므로 校正本 이외에 또 다른 版本을 소유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판본을 비교하면서 註解를 달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상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검증하기가 어렵다²⁰⁾. 이에 이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인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馬繼興의 주장에 근거하여 『宋本傷寒論』과 『註解傷寒論』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¹⁾.

成註本은 모두 10券으로서 내용과 편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宋本과 크게 비슷하지만 增刪된 부분이 있으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이 늘어난 부분

- ① 卷首에 「運氣圖說」 1券이 더하여졌다.
- ② 『傷寒論』의 원문 아래에 成註가 더하여졌다.
- ③ 각 卷末에 “釋音”이란 항목이 더하여졌다.

(2) 刪去된 부분

- ① 宋本の 각 券에 나오는 중복되는 처방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동일한 이름의 한 개 처방만이 남겨졌다.
- ② 宋本에 나오는 25개의 加減方은 모두 正文을 따라 삭제되었고, 10券의 끝에 별도로 편집되었다.
- ③ 宋本の 卷首에 나오는 세부 조목에 관한 조문은 삭제되었다.
- ④ 宋本の 8·9·10券에 나오는 “可”, “不可”와 관계해 중복 출현되는 조문은 모두 삭제되었다.
- ⑤ 宋本에 있는 이른바 王叔和의 校語는 삭제되었다. 또 「傷寒例」一篇의 校語는 註文으로 고쳐졌다.
- ⑥ 林億 등의 校註는 삭제되었다.

3. 成註本の 刊本

成無已가 주해한 『註解傷寒論』은 1172년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간행이 되어 왔다. 이에 『註解傷寒論』의 刊本과 관련된 내용을 馬繼興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²²⁾.

1) 金刊本

成無已가 撰成한 『註解傷寒論』의 시기는 대략 1144년(金·皇統4年)이다. 다만 이 책은 成無已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였고, 그의 死後에 그를 좋아했던 친구인 王鼎이 인쇄를 하여 1172년(金·大定12年)에

20)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p. 717-718.

21)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127-128.

22)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128.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2) 元刊本

- (1) 孝永堂刊本 - 1304년(大德甲辰)
- (2) 元刊未詳本 - 년대 미상

3) 明刊本

- (1) 熊氏種德堂刊本 - 1509년(正德4년)
- (2) 汪濟川刊本 - 1545년(嘉靖24년)
- (3) 熊氏刊本 - 1560년(嘉靖39년)
- (4) 趙開美刊本²³⁾ - 1599년(萬曆27년)
- (5) 吳勉學刊本²⁴⁾ - 1601년(萬曆29년)

4) 清刊本

- (1) 木刊本
 - ① 貴文堂刊本 - 1823년(道光3년)
 - ② 信元堂刊本 - 1844년(道光24년)
 - ③ 1864년(同治3년)刊本
 - ④ 聚錦堂刊本 - 1865년(同治4년)
 - ⑤ 雙白燕堂陸氏刊本 - 1870년(同治9년)
 - ⑥ 宛委山莊刊本 - 1875년(光緒元年)
 - ⑦ 掃葉山房刊本 - 1880년(光緒6년)
 - ⑧ 成都崇文書局鄧氏刊『仲景全書』本 - 1894년(光緒20년)
 - ⑨ 維新書局刊『醫統正脉』本 - 1894년(光緒20년)
 - ⑩ 文運書局刊本 - 1895년(光緒21년)
 - ⑪ 益元書局刊本, 漢文書局刊本, 湖南書局刊『二十子』本 - 1896년(光緒22년)
 - ⑫ 1899년(光緒25년)刊本
 - ⑬ 重刊『醫統正脉』本 - 1907년(光緒33년)
 - ⑭ 文翰樓刊本, 兩儀堂刊本, 文秀堂刊本, 廣州大文堂刊本 - 년대 미상
- (2) 寫錄本
 - ① 『四庫全書』本 - 1741년
- (3) 石印本
 - ① 復古書齋本 - 1896년(光緒22년)

5) 近現代刊本

- (1) 木刊本
 - ① 『醫統正脉』本 - 1923년
- (2) 石印本
 - ① 上海江東書局本 - 1911-1912년
 - ② 1912年石印本
 - ③ 上海啓新書局本, 廣雅書局本 - 1924년
 - ④ 上海受古書局本 - 1929년
- (3) 鉛印本
 - ① 上海中醫書局鉛印本 - 1924년
 - ② 中華書局鉛印『四部備要』本 - 1924년
 - ③ 商務印書館排印本 - 1955-1973년
 - ④ 人民衛生出版社點校排印本 - 1962년
- (4) 影印本
 - ① 豐城熊氏据影元抄本影印 - 1924년
 - ② 『四部叢刊』影印本 - 1919-1935년
 - ③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 1955년

6) 日本刊本

- (1) 香川修德刊小字本 - 1715년(正德5년)
- (2) 京都刊本 - 1756년(寶歷6년)
- (3) 躋壽館影元刊本 - 1830년(天保元年)
- (4) 日本重雕元本 - 1835년(天保9년)
- (5) 日本刊『仲景全書』本 - 년대 미상

III. 結 論

이상 서지학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成無己는 北宋·聊攝 사람으로, 그에 관한 기록은 많지가 않아 다만 『醫林列傳』과 『古今醫統大全』 및 그의 저서의 몇몇 序文 및 跋文을 통해 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의 著書로는 『註解傷寒論』 10卷과 『傷寒明理論』 4卷이 있으며, 이 著作들은 소박한 이론으로 『傷寒論』의 未發된 뜻을 闡明하였고, 아울러 方藥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원화된 이론체계를 형성했으며, 辨證論治에 대한 정신을 闡述하는 데 대단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註解, 論證, 方論을 통해 그의 傷寒學說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23) 『仲景全書』本을 말한다.
 24) 『醫統正脉』本을 말한다.

제시하고 있다.

그가 撰成한 『註解傷寒論』은 『傷寒論』 전반에 걸쳐 註釋을 加한 최초의 註釋書로서, 그 특징은 “經”으로 “論”·“症”·“方”을 해석하였고 券後에 釋音을 두었으며 “忠實原著, 言簡意賅”하여 나름의 註를 다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또한 成註本은 모두 10券으로서 내용과 편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宋本과 크게 비슷하지만 增刪된 부분이 여러 부분에 나타난다.

IV. 參考文獻

1.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2.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맹옹재·박현국·박경남·김남일·신영일·김용진·안상우·김훈·김홍균·차웅석 옮김.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3.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4. 成無已 註解.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 徐春甫 編集.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6.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7.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